

#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에 관한 융복합적 연구

한현희  
춘해보건대학교

## A Study of Convergence on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Hyun-Hee Han

Dep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27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다. 연구결과 임상 실습시 10회 이상 해보았다고 응답한 항목은 활력징후였으며 전혀 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수혈, 관장, 기관절개관 관리 순 이었다. 평가 전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가 가장 높고 수혈이 가장 낮았으며 평가 후 수행자신감은 근육주사가 가장 낮았다. 수행능력은 산소요법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근육주사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수행빈도는 수행자신감( $r=0.414$ ,  $p<.001$ ) 및 수행능력( $r=0.322$ ,  $p=.007$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r=0.281$ ,  $p=.003$ ).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이 비침습적이며 단순측정을 하는 위주로 되고 있으며 수행빈도가 적은 항목이 수행자신감이 낮으므로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주제어** :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간호대학생,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is descriptive research to investigate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and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by 227 nursing student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y who experienced more than 10times in clinical practice was V/S and they never experienced items such as transfusion, enema and T-tube care. For pre self-confidence, they had the highest V/S and the lowest transfusion. For post self-confidence, they had the lowest IM.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xygen therapy with nasal cannula was measured highest, and IM was measured lowest. Frequency of performanc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confidence( $r=0.414$ ,  $p<.001$ ) and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r=0.322$ ,  $p=.007$ ). Self-confidence with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had positive correlation( $r=0.281$ ,  $p=.003$ ).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clinical practice is carried out, non-invasive, simple measurements, and they had low self-confidence of the items with low frequency of performance, so convergency training methods to complement this point are needed.

**Key Words** : Core Nursing Skills,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Convergence

Received 14 June 2016, Revised 26 July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Hyun-hee Han  
(Dep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mail: jc3han@ch.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며, 간호교육의 목적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융복합적 교육을 통해 간호수행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실습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임상상황에 적용하고 스스로 학습과 경험을 얻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1].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고[2] 이미 배운 지식을 환자를 돌보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이나 행동방향을 터득하고 건강관리 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관과 태도까지 형성하게 된다[3]. 하지만 현재의 간호교육은 간호교육기관의 증가로 인한 실습기관 확보의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기준의 강화, 환자의 인권존중 및 질적간호요구 등으로 인해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학생이 환자에게 직접 간호술을 수행 할 기회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간호사가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호 역량이 필요하고 신규간호사는 임상에서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간호술을 수행해야 한다. 간호학생들이 졸업 직후 임상 현장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신규 간호사의 직무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신규간호사의 업무 중 49%가 간호수행에 해당되었고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중 6가지가 간호수행에 속하는 일이다[4]. 조미혜(2007)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주로 수행하는 간호활동은 활력증상 측정하기, 심호흡과 기침 격려하기, 간호진단하기, 냉요법 적용하기, 함께 있어주기 등으로 단순하며, 부작용의 위험도가 낮고, 비침습적인 간호술 항목에 한정되고 70% 이상의 간호학생들이 수행한 간호 활동이 신규간호사 업무 요소의 12%에 불과하다고 보고 하였다[5]. 이것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임상실습이 신규간호사로서의 간호술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졸업 후 바로 임상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재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3,5] 간호술을 시행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6] 이직이나 사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환자들은 질 높은 간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간호를 해야 하는 간호사의

능력이 더욱 요구되면서,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최소한의 표준화된 임상수행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졌고[7] 간호교육기관의 증가로 간호교육과 간호대학 졸업생의 질에 있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간호교육인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간호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ABON)에서는 2012년도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가지의 표준화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 및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현재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교육기관의 인증평가 항목으로서 통합실습교육 등으로 학습할 것을 권고하여 각 대학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교육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 자신감[8]과 스트레스와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9], 부서에 따른 중요성인식 연구[10] 등이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정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11], 수행자신감에 관한 연구[12,13], 일부 항목의 재교육 후 수행능력 및 자신감조사[14], 핵심기본간호 실습만족도,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간의 관계[15]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연구대상이 임상간호사이거나 2, 3학년년을 대상으로 하여 몇몇 항목만을 평가하였고 이제 곧 간호교육 현장을 떠나 임상현장에 나가서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졸업학년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임상실습시 실제로 실습을 해 본 빈도와 학생들의 수행자신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심으로 일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들에게 대상자들이 지각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및 평가 전, 후 수행자신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핵심기본간호술 교육방안과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4년제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임상실습시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평가 실시 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평가 전후의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임상실습시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4년제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과 임상실습시 수행빈도, 수행자신감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U시 소재 일 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생으로 임상실습을 완료하고 소속대학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예정된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후 수거 봉투에 직접 담도록 하였다. 사전설문지는 수행능력 평가 5일전, 사후 설문지는 16개 항목의 평가 종료 후 수집하였다. 총 23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22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3을 사용하여 양측검정시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5, 효과크기 .5 를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표집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이하 수행능력)이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2012년에 제시하고 2014년에 개정된 20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에 의한 평가 점수로 각 항목의 평가담당교수가 각 수행 절차에서 ‘완전 수행’ 2점, ‘부분 수행’ 1점, ‘미시행’ 0점으로 채점한 점수를 각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가는 1:1로 이루어 졌고 평가 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가지 평가항목 중에서 임상실습에서 경험하기 어렵고 연구대상자 전원이 대학의 졸업규정에 따라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실무 기술보다 설명의 부분이 많은 ‘입원관리하기’와 투약부분 중 ‘경구투약’, 배뇨간호 부분에서 ‘단순도뇨’를 제외한 16개의 항목을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활력징후측정(이하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수액주입(이하 정맥주입), 수혈요법(이하 수혈), 간헐적 위관영양(이하 위관영양), 유치도뇨, 배출관장(이하 관장), 수술 전 간호, 수술 후 간호,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이하 격리실 출입)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모니터 적용(이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이하 산소요법), 기관 내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 2.3.2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빈도’(이하 수행빈도)는 해당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각 항목을 대상자들이 임상실습에서 몇 회나 수행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5점 리커트척도(1점-전혀해보지 못함, 2점-1-3회 해봄, 3점-4-6회 해봄, 4점- 7-9회 해봄, 5점-10회 이상 해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빈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한 연구 도구는 간호학 교수 4인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7$  이었다.

### 2.3.3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간호술 자신감’이란 간호에 적용되는 자신의 지식과 실무 기술에 대한 믿음[16]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하 수행자신감)이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평가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16가지 핵심기본간호술 각 항목을 수행하는 자신의 지식과 실무기술에 대한 주관적 믿음의 정도를 숫자 평정척도로 10점(전혀 못 하겠다)부터 100점(혼자서 능숙하게 아주 잘 할 수 있다)까지 10점 간격으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전과 평가 종료 후 대상자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한 연구 도구는 간호학 교수 4인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2$  이다.

###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수행능력 평가 실시 전후의 수행자신감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C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CH 201510-11)과 대학의 소속기관장의 연구협조 승낙을 받았으며, 연구진행 전에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도 연구목적과 자발적 참여 및 도중 철회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각 대상자가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은 13.2%, 여학생이 86.8%였으며 85%의 학생이 24세 이하였다. 대상자들의 76.5%인 174명이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가 취업에 ‘매우 도움이 된다’ 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2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0 (13.2)
	female	197 (86.8)
Age (years)	below 24	193 (85)
	above 25	34 (15)
Help employment	Moderate	3 (1.3)
	So much	50 (22.1)
	Very much	174 (76.5)

### 3.2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과 임상실습시 경험한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대상자들은 16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항목 중 임상 실습시 10회 이상 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활력징후가 84.2%로 가장 많았고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가 46.7%였다. 전혀 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수혈과 관장으로 각각 74%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관절개관 관리 49.8%, 유치도뇨 43.6% 순이었다. 평가 전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가 87.8( $\pm 17.96$ ) 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혈이 55.99( $\pm 27.52$ )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가 후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가 93.74( $\pm 10.02$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육주사 항목이 85.59( $\pm 15.02$ )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가 전, 후로 가장 높은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보인 것은 수혈로 31.45( $\pm 25.73$ )점이었다. 수행능력은 산소요법이 96.03( $\pm 3.59$ ), 활력징후 95.33( $\pm 4.88$ ), 산소포화도와 심전도 94.13( $\pm 5.06$ )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근육주사가 85.95( $\pm 7.96$ )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Table 2>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N: 227)

	Frequency of performance					Pre-test Self-Confidence	Post-test Self-Confidence	Difference (post- pre)	t	p	Perfor mance Assess ment scores
	0	1-3 times	4-6 times	7-9 times	more 10 times						
	n (%)										Mean (SD)
Vital sign(V/S)	0(0)	15(6.6)	13(5.7)	8(3.5)	191(84.2)	87.8(17.96)	93.74(10.02)	5.94(18.86)	4.74	.000	95.33 (4.88)
Intramuscular injection(IM)	63(27.8)	110(48.5)	38(16.7)	6(2.6)	10(4.4)	71.45(22.54)	85.59(15.02)	14.14(21.27)	10.01	.000	85.95 (7.96)
Subcutaneous injection(SC)	67(29.5)	114(50.2)	26(11.5)	3(1.3)	17(7.5)	70.00(24.02)	89.69(11.98)	19.69(22.40)	13.24	.000	90.20 (7.21)
Intradermal injection(ID)	71(31.3)	115(50.7)	28(12.3)	3(1.3)	10(4.4)	68.37(24.50)	89.64(11.96)	21.27(22.23)	14.41	.000	88.35 (8.19)
Intravenous fluid injection (IV)	73(32.2)	99(43.6)	37(16.3)	8(3.5)	10(4.4)	64.10(26.73)	88.76(12.48)	24.66(23.67)	15.70	.000	89.14 (6.12)
Transfusion	168(74)	43(18.9)	9(4.0)	0(0)	7(3.1)	55.99(27.52)	87.44(13.58)	31.45(25.73)	18.41	.000	89.94 (8.54)
Intermittent gastric tube feeding	65(28.6)	76(33.5)	47(20.7)	12(5.3)	27(11.9)	69.47(24.90)	91.14(11.34)	21.67(23.34)	13.98	.000	93.58 (5.15)
Indwelling urinary catheterization	99(43.6)	85(37.4)	20(8.8)	13(5.7)	10(4.4)	64.36(26.33)	89.42(12.23)	25.06(24.15)	15.63	.000	89.17 (8.28)
Enema	168(74.0)	43(18.9)	8(3.5)	1(0.4)	7(3.1)	59.43(26.44)	90.39(11.57)	30.96(26.25)	17.91	.000	92.95 (6.32)
Pre operative care	63(27.8)	125(55.1)	20(8.8)	8(3.5)	11(4.8)	68.85(23.56)	91.27(11.15)	22.42(22.05)	15.31	.000	93.95 (5.57)
Post operative care	63(27.8)	116(51.1)	27(11.9)	7(3.1)	14(6.2)	68.37(23.88)	91.67(10.80)	23.30(23.12)	15.15	.000	92.55 (5.28)
Wearing protection equipments when entering a quarantine room & managing medical wastes	73(32.2)	76(33.5)	39(17.2)	17(7.5)	22(9.6)	68.55(24.67)	91.98(10.93)	23.43(23.86)	14.79	.000	93.72 (6.28)
Using pulse oximeter & EKG monitoring	18(7.9)	46(20.3)	38(16.7)	19(8.3)	106(46.7)	79.38(22.07)	92.51(10.61)	13.12(21.66)	9.12	.000	94.13 (5.06)
Oxygen therapy with nasal cannula	41(18.1)	98(43.2)	41(18.1)	20(8.8)	27(11.9)	74.89(22.48)	93.56(9.64)	18.67(21.84)	12.88	.000	96.03 (3.59)
Endotracheal suction	69(30.4)	84(37)	33(14.5)	11(4.8)	30(13.2)	70.49(24.28)	89.82(12.71)	19.33(23.15)	12.55	.000	91.75 (5.38)
T-tube care	113(49.8)	84(37)	19(8.4)	4(1.8)	7(3.1)	62.51(25.19)	87.66(14.18)	25.15(24.37)	15.54	.000	90.83 (7.43)

3.3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간의 관계는 <Table 3> 과 같다. 분석결과 수행빈도는 수행자신감( $r=0.414, p<.001$ ) 및 수행능력( $r=0.322, p=.007$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r=0.281, p=.003$ ).

<Table 3> Correlations among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and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N: 227)

Variables	Frequency of performance	Pre-test Self-Confidence
Pre-test Self-Confidence	.414***(.000)	1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322**(.007)	.281**(.003)

\* $p<.05$ , \*\* $p<.01$ ,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심으로 일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들에게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이 지각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및 평가 전, 후 수행자신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간호교육 방안과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가 임상실습시 10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활력징후(84.2%)와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46.7%)순이었는데 이는 조미혜(2007)와 방순식 등(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5,9] 전혀 실습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수혈(74%), 관장(74%), 기관절개관 관리(49.8%) 순으로 이는 학생들이 관찰도 수행도 해보지 못한 미경험 활동이 기관절개관 관리(39.5%), 기관내 흡인(33.9%), 관장(27%) 순이라고 보고한 최동원(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1]. 또한 본 연구에서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사 등 투약과 관련된 항목에서 약 30%에 가까운 대상자들이 전혀 실습을 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는데 이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실습이 비침습적이며 단순측정을 하는 위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투약관련 핵심기본간호술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스스로 간호수행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는데[10]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약부분의 임상실습이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각 항목의 수행자신감을 살펴보면 수행빈도가 높은 활력징후가 평가 전후로 자신감이 높았으며 수행빈도가 적은 수혈이 수행 전 자신감이 가장 낮았다.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입, 수혈 등 투약과 관련된 항목은 평가 후에도 수행자신감이 90점 이하로 측정 되었다. 이는 김아린 등(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5]. 수행능력 또한 이와 비슷하게 산소요법, 활력징후, 산소포화도와 심전도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투약관련 항목과 유치도뇨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근육주사는 수행능력이 85.95(±7.96)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근육주사 평가시 다양한 종류의 약과 용량의 투약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대상자들이 평가 현장에서 즉시 약용량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절차에 맞는 수행과 정확한 약용량 계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어 진다.

대상자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분석되어 수행빈도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 및 수행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시나리오의 제시, 역할극, 임상실습시 프리셉터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교육, 임상수행능력 프로그램활용이 간호대학생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언급하였고[17,18,19,20,21] 서인순 등(2014)은 교내 기초임상실습이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22]. 또한 스마트폰 동영상과 형성적 피드백을 활용한 교육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23] 시뮬레이션교육은 강의실에서 강의로 배운 이론을 임상수행능력으로 발휘시키는데 탁월하다[24]. 그러므로 현 교과과정 내에 있는 기본간호학 교내 실습과 시뮬레이션 교육, 임상 실습 등의 교육내용면의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여 반복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상상황의 적용과 프리셉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행빈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계획이 요구된다.

대상자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관해 물었을 때 76.5%의 학생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라고 응답 하였는데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임상실습 종료시기가 미뤄져 연구기간이 병원의 입사면접시기와 비슷하였고 현재 병원에서도 핵심기본간호술기에 관한 질문이나 필요한 물품 챙겨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사시험시 활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졸업반 학생의 실제 간호술의 객관적 수행능력을 확인하였고 대상자들이 지각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과 수행빈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간호교육 방안과 간호대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의 20개 항목 중 16개만을 평가항목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

해야 하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개의 항목을 모두 연구해 보는 것과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의 자신감과 수행능력을 비교하는 연구와 이와 관련한 질적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임상실습시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빈도는 대상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표기하도록 하여 실제 교육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행능력평가를 사전에 공지 후 시행하였으므로 학생들의 자가 사전 학습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 할 수 없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임상실습이 비침습적이며 단순측정을 하는 위주로 실습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또한 수행빈도가 많은 항목이 평가전 수행자신감이 높고 수행능력, 평가후 수행자신감의 점수가 높았고 수행빈도가 적은 항목이 수행자신감, 수행능력이 낮으므로 이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간호학 실습과 시뮬레이션 교육, 임상 실습 등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핵심기본간호술기를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N. Suwan, N. Kasatpibal, P. Sawasdisingha, "Effects of student-centered teaching on knowledge, practice, and satisfaction of clean techniques among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Singapore Nursing Journal*, Vol. 40, No. 4, pp. 30-37, 2013.
- [2]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 [3] I. S. Kown, Y. 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1, pp. 25-33, 2012
- [4] M. S. Kim, J. H. Song, B. H. Kim, S. H. Lee, "A Study on the job Analysis for New Nurse",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Vol. 1, No. 1, p. 15-26. 2004
- [5]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143-154, 2007.
- [6] Y. J. Kim, "A Study on Type of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of New Nursing Staff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4, pp. 443-454, 2014
- [7] C. J. Klein, E. R. Fowles, "An investigation of nursing competence and the competence outcomes performance assessment curricular approach: Senior students' self-reported perception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25, No. 2, pp. 109-121, 2009
- [8] Y. H. Kim, S. Y. Hwang, A. Y. Lee.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37-46. 2014
- [9] S. S. Bang, I. O. Kim,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628-638. 2014
- [10] E. H. Chang, M. H. Mo, E. H. Choi, "A Comparative study on Perceived Importance and Frequency of Core Nursing Skills between General and Special war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264-1272, 2015
- [11] D. W. Choi,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184-191, 2014
- [12] A. K. Han, D. S. Cho, J. S. Won, “A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in Nursing Practicum among Final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2, pp. 162-173, 2014
- [13] I. S. Lee, C. S. Park,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2, No. 3, pp. 297-307, 2015
- [14] M. S. Jung, Y. S. Kwon,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Confid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4, pp. 295-302, 2015
- [15] A. R. Kim, M. S. So, “Satisfaction of Practice Education, Performance Self-confidence and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Basic Core Skills fo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Society, Vol. 5, No. 3, pp. 88-94, 2012
- [16] M. Aoyama, Y. Tamura, Y. Ishikawa, M. Yada, I. Miyawaki, “Confidence-weighted testing: A descriptive study of Japanese nursing students”,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 15, No. 4, pp. 504-509, 2013
- [17] H. S. Kim, H. R. Park, E. H. Park. “Empowerment on Clinical Nursing Skills Core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589-599, 2014
- [18] Y. H. Kim, Y. M. Lee, “Relationship of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after practice evaluation of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using role pla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 pp. 147-155, 2012.
- [19] S. J. Hong, E. H. Kim,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0, pp. 6204-6214, 2014.
- [20] H. J. Chae, “The needs and effects of convergence-based simulation practice for obstetrical nurs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77-386, 2015
- [21] I. S. Seo, S. M. Oh, D. W. Choi, H. O. Park, R. W. Ma,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i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276-2284, 2014
- [22] E. H. Park, H. R. Park, H. S. Kim,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76-86, 015.
- [23] Y. J. Chae, Y. M. Ha, “Effectiveness of Education Program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using Recording Video with Smartphone and Formative Feedbac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285-294, 2016
- [24] J. H. Kim, “Mannequin Simulation in the Health Sc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2, pp. 67-71, 2011

#### 한 현 희(Han, Hyun Hee)



- 2001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간호교육, 의료법
- E-Mail : jc3han@ch.ac.kr